

지역 소식통

고창군, 8월 18일까지 양심냉장고 6곳 운영

고창군이 오는 8월18일까지 지역 6곳에서 양심냉장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운 여름 길을 지나는 주민들이 무료로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거리시설 △군청 앞 △고창읍 성스타이선 등이다. 냉장고는 폭염특보가 지속적 으로 발효되어 운영질환 등 주민의 폭염피해 최소를 위한 것으로 야외활동자, 보행자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1인 1병씩 가져갈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더운 여름철 야외활동을 하는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생수전달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섬 주민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시행

부안군은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격포-위도(식도·왕등도 포함) 전 구간 섬 주민 여객선 천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섬 주민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시행으로 기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추가로 도비와 군비 3200만원을 투입해 위도 섬 주민이면 누구나 운항거리와 관계없이 천원만 내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그간 국고 보조로 지원 해왔으나 여전히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도서민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섬 주민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시행으로 도서민의 교통비 절감과 이동 및 활동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분증 제시 없이도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도록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해 도서주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덜어줬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매니페스토 경진 '최우수'

군, '일자리·고용환경 개선' 분야 '고창형 농촌살리기 프로젝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창군 예산 민선 출범이후 첫 번째 최우수상 수상으로,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실현가능한 공약,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정책약속'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창군은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 분야에 공동 주최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최우수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 분야'에서 전지적 농민 시집 '고창형 농촌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 전국 농촌지자체의 과제인 '농촌인력 문제'와 관련, '고창형 솔루션과 농업소득 향상 방안'을 제시 큰 관심을 끌었다.



앞서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직후 '안정적인 농촌 일손공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국 최초 '고창군 농촌인력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인 농촌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역 농촌과 땀흘려 농사짓는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5월에는 국내 1호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도 준공했다. 농업근로자의 주거

환경이 개선돼 안정적인 농촌인력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전을 하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심 군수는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안에도 힘을 쏟고 있다. 총사업비 320여억원이 투입되는 '김치원료 플랫폼 사업'은 자문자랑고 50개와 절임기공시설을 만들어 배추, 무, 생강, 양파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원료의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과 안정적인 수급조절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조성,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인 실질소득 향상사업 등에 심사위원단의 호평이 쏟아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2024 시민과의 대화' 마무리

23개 읍면동 방문, 총 158건 건의사항 접수... 현장점검 등 거쳐 2025 본예산 반영 검토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달 31일 웅동면을 마지막으로 '2024 시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23개 읍·면·동에서 총 1600여 명의 시민들과 만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행정을 펼쳤다. 특히, 도로 확포장, 농로포장, 농배수로 정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개설 등 다양한 지역 현안과 불편 사항을 포함해 총 158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복지택시 운행 개선 요청,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속 추진,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도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건의사항과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고,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부안군이 지역 현안사업 및 재난에 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한 결과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개축(12억원)과 행안면사무소 내진보강 공사(3억원), 상서면사무소 내진보강 공사(3억원), 문수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 4건의 재난안전 사업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 개축 사업은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노후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안면사무소와 상서면사무소 내진보강 공사는 노후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문수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인북교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로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 건의

심덕섭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위한 중앙부처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심 군수는 고창군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국회 등에 직접 발로 뛰며 국가예산 확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심 군수는 조용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국제 카누슬러럼 경기장 조성사업(300억원)과 흥덕 하수관로 정비사업(77억원) 및 용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89억원), 노을대교 건립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건을 건의했다. 또한 강준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서해안 구시포 선택드라이브 조성사업(100억원)을 건의했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서해안 노을 메카인 구시포항과 명사십리 일원에 관광객을 위한 야간경관

시설과 선택 전망대 등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오상우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58억원)을 건의, 조규산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에게 도요물대세 보급자리 조성사업(50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심 군수는 행정안전부 박진석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만나 내년도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대해 건의하고,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에게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을 건의하는 등 현안사업에 대해 힘써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부의 세수여건 악화로 내년도 국비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물빛축제 4일까지 시원한 물놀이 등 '다채'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정읍물빛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원한 물놀이와 합한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채로운 재미있는 게임과 물놀이, 합한 공연이 어우러진 2024 정읍물빛축제(이하 물빛축제)가 1일 시작된 가운데 많은 이들이 행사장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물빛 축제는 올해로 두 번째다. 정읍의 대표 명소인 정읍천과 지난달 개장한 전국 최초 복합형 바다분수인 미로분수와 연계한 축제로 기획됐다. 낮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과 물놀이 등 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저녁 7시부터는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EDM(Electronic Dance Music) 파티를 기본으로 인기 걸그룹 하이키와 내로라 하는 힙합가수인 단발리, 김효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크라잉넛과 육종완 밴드가 뜨거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본 공연에 앞서 지역의 끼 많은 청소년을 위한 자유무대도 마련돼 있다. 푸드트럭과 생맥주존, 재밌는 타투 해보기 등의 체험부스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화려한 반딧불이 레이저와 LED 야간경관 조명은 여름밤 물빛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여름과 젊음을 합한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에서는 여타 축제와는 다른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읍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